

내년 예산 728조원 확정

인공지능, R&D 예산 증액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8% 이상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본예산으로, 전임 정부의 긴축 기조와 달리 확장재정 노선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674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2조6천억원(3.5%) 증가했으며,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54조7천억원(8.1%)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정됐다. AI 예산은 올해 3조3천억원에서 내년 10조1천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며, R&D도 29조6천억원에서 35조3천억원으로 19.3% 증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피지컬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바이오·에너지·방산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분야별로는 국방(66조3천억원, +8.2%), 보건·복지·고용(269조1천억원, +8.2%), 산업·중소기업·에너지(32조3천억원, +14.7%), 교육(99조8천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국방 분야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와 AI·드론·로봇 등 첨단무기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건희 여사 영부인 첫 구속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구속기소 사례는 처음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법정에서 심리를 받게 된다. 공판준비절차가 끝나면 주 1회 이상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내년 2월 말까지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다만 특검은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김건희 금품수수 의혹과 나머지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이미 수사가 분기점을 지났다"고 말했다.

미국과 실용외교 궤도 안착 평가

돌발 변수 없이 마무리, 동맹 현대화 문제 등 남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치렀다. 이번 회담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 노선의 첫 시험대로 주목을 받았지만, 양측 모두 돌발 변수 없이 무난히 마무리되면서 동맹의 기초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회담 직전까지는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이 도마에 오를 것이라 관측이 많았다. 미국이 한국의 대규모 투자 확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이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정상 간 대화에서는 이 같은 민감한 의제가 다뤄지지 않았고, 분위기 반전 속에서 첫 만남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며 호의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다만 관세 협상, 동맹 현대화 문제 등은 여전히 후속 협상의 테이블 위에 남아 있어 '실질적 청구서'는 뒤로 미뤄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 기조를 실천에 옮겼다는 평가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에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권유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다만 북한과 중국의 반응이 불확실해 성과의 지속성은 미지수라는 분석이 따른다.



▲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과제였다. 거친 발언과 압박 전술로 상대를 혼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협상 스타일을 맞아 이 대통령은 친화력과 유머로 대응했다. 오벌오피스 내부를 칭찬하고 다우지수 상승을 언급하는가 하면, "북한에 트럼프월드를 지어 나도 가서 끝판을 치게 해 달라"는 농담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회담을 마무리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라며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각별히 강조했다. 물론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태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장밋빛 전망은 이르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이 대통령은 불확실한 상대를 상대로 첫 단추를 무사히 꿰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미국 800불 이하 물품도 15% 관세

미국 정부의 통관 규정 강화로 인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국제 우편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새 규정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서류·서신을 제외한 모든 미국행 국제 우편물이 신고 대상이 되고, 800달러 이하 물품에도 일괄적으로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 이에 따라 항공 우편 접수를 이날부터 중단했으며, 26일부터는 일반 EMS도 보낼 수 없게 된다. 다만 UPS와 제휴한 'EMS 프리미엄'은 이용 가능하다.

문제는 비용과 취급 품목이다. EMS 프리미엄은 4.5kg을 초과하는 중량품은 기존 EMS보다 저렴할 수

있으나, 가벼운 물품의 경우 평균 10%가량 더 비싸다. 또한 민간 특송사는 김치 등 식품류나 고가 전자제품은 잘 받아주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다.

최진희 서울지방우정청 국제영업과장은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관세 대납업체와의 연계를 추진 중"이라며 "1~2개월 안에 기존과 유사한 품질과 가격의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우편물을 준비하는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물품 가격과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STAR+ DENTAL

라미라다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픈 기념 특별

임플란트
\$1,200부터

크라운
\$500부터

GRAND OPENING



스타 플러스 덴탈 그랜드 오픈!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진료

임플란트 / 신경치료 / 크라운 / 보철치료 / 틀니

★ 무료상담!

ALL PPO, LIBERTY, ALL MEDI-CAL, DENTI-CAL, IEHP, MOLINA

T.714.576.5257 | 15862 Imperial Hwy., La Mirada, CA 90638

화, 금, 토요일 오픈합니다 9:00AM - 6:00PM